

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AIG, 추가 구제금융 협상

- AIG는 지난 9월 미국 정부로부터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남.
 - AIG는 11월 10일 월요일 3/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에 앞서 일요일 미국 정부와 부채-주식간 스왑과, 정부의 부실담보대출 증권 인수를 골자로 하는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며,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곧바로 발표하기 위해 AIG 이사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려짐.
- AIG가 정부와의 재협상에 나서게 된 동기로는 첫째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이미 소진되어가는 상황에서 부동화증권 부문에 375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 발생했다는 점, 둘째 예상보다 지체되는 AIG 자산매각 상황, 셋째 자산손실이 발생할 때 마다 추가적으로 쌓아두어야 하는 준비금 증가의 부담을 들 수 있음.
 - 자금압박과 관련해서 AIG는 예상 소요액 1,225억 달러(구제금융 850억 달러 + 추가 소요액 375억 달러) 중 이미 810억 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남.
 -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2010년 정부 구제금융 상환 기한을 맞추기 위한 AIG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라 가격과 인수조건 협상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남.
 - 부동화증권 관련 손실 및 CDS관련 손실 등이 발생할 때마다 지급준비금이 추가적으로 쌓아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AIG는 자금 압박을 더욱 크게 받았고 이로 인해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- AIG와 미국 정부와의 이번 협상에서는 이자부담 축소, 부채-주식 스왑, 상환 만기 연장, 정부 부동화증권 인수, CDS증권 인수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.
 - 이자지급 조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AIG와 미국 정부간에 결정된 리보금리 +8.5% 이자부담 조건은 최근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은행권의 5%의 이자부담 조

건에 비하면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.

-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다른 구제금융 혜택 기관처럼 구제금융 부채 전체와 AIG 우선주의 80%와 맞교환하는 스왑이 제안되거나 부분 맞교환 제안이 시도될 것으로 보임.
- 또한 2년 만기 구제금융 상환기간도 5년 만기로 연장 요청될 것으로 보임.
- 한편 더욱 직접적인 부채부담 해결방안으로 미국 정부가 부실담보대출 관련 증권과 CDS 증권도 인수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.

(Financial Times 11/8)